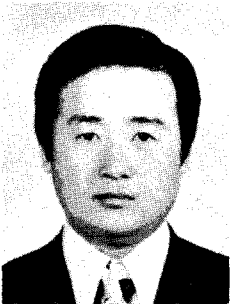


국제사료 원료시세 동향과 도입사료 원료수입 기간단축

곡물재고 감소로 품귀 내지는 가격이 상승될 전망으로 구매가 어려워지고 있는 바 대두박 등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10% 정도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김 동 수
玉城씨비스상사 대표

중공산 사료원료동향

중공의 개방화 정책에 따라 한국은 84년이후 현재까지 상당량의 사료원료를 중공시장에 의존해 왔으나 86년말부터 현재까지 사료원료의 주종을 이루는 옥수수, 미국산보다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구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부원료는 상당히 염가로 거래되어 현재까지도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매한 바 있었으나 향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격이 양등되거나 구매가 용의치 않을 전망이다.

1) 중공내부의 경제근대화 개방화 정책에 따라 농민들은 소득이 낮은 작물보다는 소득이 높은 특용작물 등의 경작에 심혈을 기울여 타작물보다 비교적 단위당 수익성이 적은 사료용 작물을 재배치 않으려는 심리에 따라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며,

2) 자국내 배합사료 수요증가에 따라 일부원료는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고,

3)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처음에는 강력한 수출위주의 정책일환으로 수출보조금 또는 정부의 구매보조금 지급정책 등을 시행하나 일정기간 경과후에는 수출에 있어 저가판매를 지양하고 고가판매를 유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공정부 역시 기히 금년 상반기 중 저가판매 지양의지를 표명하였고,

4)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근 홍수 등 기상악화로 농산물생산 감소우려가 있다는 점 등,

상기 사유 등을 고려할 때, 물동량 품귀와 가격양등으로 구매가 용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수확시기에 집중적인 홍수출하가 예상되는 일부품목과 대두박을 제외하고는 가격이 현재보다 10% 이상 양등되거나 물량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경우 한국은 수입선을 미국, 캐나다, 남미 등 기타국으로 전환할 수 있겠으나(중공의 경우는 5,000톤

〈표 # 1〉 '86, '87 중공산 원료시세비교

^{'86}/_{'87} 단위 C&F S/MT

	4	5	6	7	8
옥 수 수	108 / 110	108 -	103 / 103	94 -	86 -
수 수	97 -	97 -	93 / 110	84 -	80 -
면 실 박(추출)	104 / 110	101 / 107	105 / 115	105 / 125	107 / 125
대 두 박(추출)	187 / 190	197 -	190 / 190	175 / 194	198 / 199
채 종 박(%)	99 / 85	94 -	86 / 88	83 / 92	84 / 91
해바라기박(%)	106 / 110	99 / 110	102 / 110	95 / 128	95 / 128

* 주1) 상기 가격은 거래된 평균가격임

2) 옥수수, 수수는 '87부터 가격양등 및 수출물량 부족으로 OFFER가 없는 실정임.

정도의 소형 선박에 의한 수입이 가장경제적임) 부원료는 항해일수의 장기소요로 품질신선도 유지문제, 선적단위 최저15,000톤 이상에 따른 필요이상의 대형선박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선임의 증가등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문제는 국내 원료조달의 취약성과 배합사료수요가 연간 600만톤이하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800만톤이상을 상회하는 수요증가로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지점에서 더욱 어려움이 커지리라 예상된다.

동남아 사료원료 동향

옥수수 수출국인 태국은 금년도 작황부진 등으로 동남아지역에 판매할 여력이 거의 없으며 가격 역시 미국산보다 10%이상 고가이고 품질면에서도 불리하여 수입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며, 인도네시아 및 스리랑카에서 월간 15,000~20,000톤 가량의 소맥피가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나 그중 스리랑카산은 인종간의 내분관계 등으로 안정적 수입이 불투명하고 인도네시아만이 수입이 안정적임을 감안할 때 동남아산 원료의 수입은 어려움이 더욱 커지리라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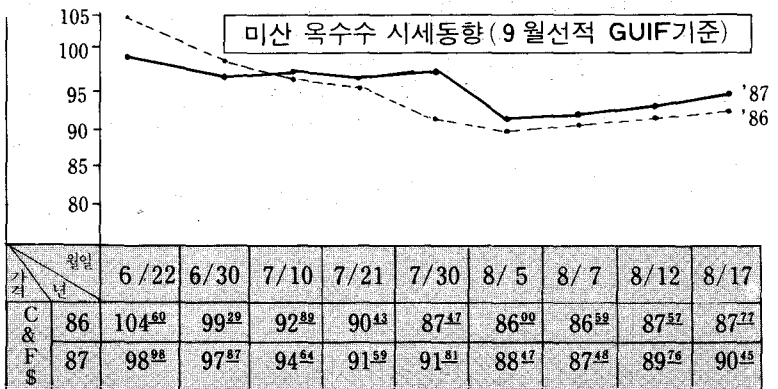
미국산 옥수수

'87.5월중 최고 100\$대를 기록 하던 미국산 옥수수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

었으나, 이는

- 옥수수 주생산단지에서 일기가 양호하며 동작이 예상된다는 점.
- 싸이로 등에 보관되어 있는 곡을 신곡출하시점 이전에 수출하여 싸이로에 신곡을 보관하여야 하는 즉, 구곡밀어내기 방안.
- 당초 예상보다 수확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USDA CROP REPORT의 발표영향. (7,199,500백만 BU → 7,231백만 BU) 등의 요인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관계자들은
- 강제로 전환되던 달러화의 최근 폭락으로 현물보유심리가 곡물 가격을 자극할 것이며,
- 연말이면 세계적인 물동량의 이동증가로 선임이 상승하고 있고,
- 대량구매국들에서 구매확장이 불투명하여, 특히 미국의 '88회계년도('87¼분기부터 '88¼분기) 중 소련의 구매물량이 예년보다 증가할 수 있고,
- 또한 아시아 국가중 중공의 구매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회복 또는 상승세를 예상

〈표 # 2〉



국제사료곡물동향

하기도 한다. 종합적으로 볼때 아직도 옥수수의 최종 결실시기 및 수확시기에 일기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는 문제가 미지수로 남아 있으나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F.O.B가격은 소폭의 상승세가 이루어질 것이며 페르시아만의 위기고조와 계절적선임 상승요인으로 상승세가 이루어 질것이며 선임이 인상되어 실제 구매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C&F 가격 역시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도입사료원료 연지급 수입 기간 단축

사료원료의 외상수입(USANCE: 연지급수입)은 정부의 통화팽창 억제정책에 따라 그간 180일에서 90일, 60일로 점차 단축되어 연지급수익이 허용되어 왔으나 최근 통화증발을 억제시키기 위한 강력한 방안의 일환으로 87년 9월부터 관세 5%인 품목에 대해서만 연지급수입을

〈최근 도입원료구매 현황〉
〈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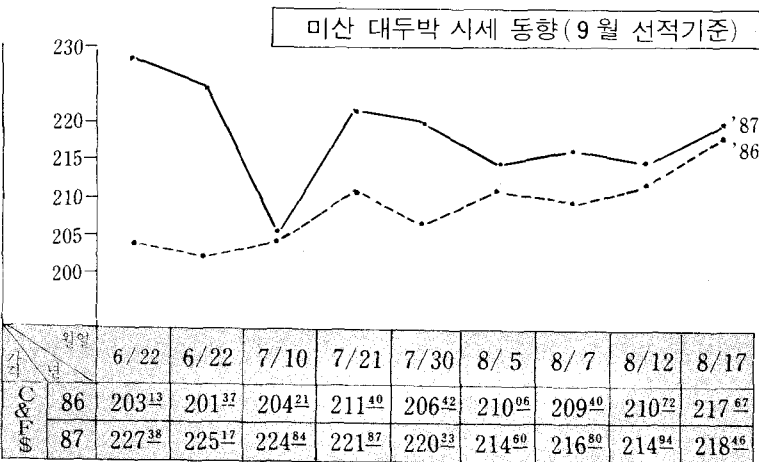
구매일자	품명	구매기관	원산지	수량(M/T)	단위(C&F)	도착예정일	비고
87. 7. 24	옥수수	축협미	국	50,000	88 ⁷⁶	87. 11. 초순	S/C1 ⁹⁵ \$ 별도
7. 29	"	사협	"	50,000	91 ⁷⁴	87. 11. 중순	
8. 13	"	사협개별사	"	"	85 ⁸⁹	"	S/C1 ⁹⁵ \$ 별도
8. 14	"	축협	"	"	87 ⁷⁰	"	
7. 29	소맥	사협	E. E. C	"	82 ⁸³	87. 11. 말	
7. 28	호밀	사협개별사	"	10,000	69 ⁵⁷	87. 11. 중순	
7. 24	대두박	축협	중공	9,000	193 ⁷⁹	87. 11. 초순	
"	"	"	"	"	194 ⁷⁹	88. 1. 초순	
8. 18	"	사협	"	16,500	199 ⁵⁰	87. 10. 초순	
"	"	"	"	11,500	"	87. 10. 중순	
8. 10	소맥파	사구회	인도네시아	5,000	83	87. 11. 초순	
"	"	"	아르헨티나	14,000	81 ⁵⁵	87. 11. 중순	
"	"	"	인도네시아	5,000	83	87. 12. 초순	
8. 18	어분	사협	남미	2,000	432 ⁵⁰	87. 9. 초순	
"	"	"	"	"	"	87. 10. 말	

허용하되, 그기간도 60일에서 30~40일로 단축하고 관세 5%이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외상수입을 금지키로 방침이 굳어졌다고하는 바. 이러한 경우 배합사료원료는 사료용소맥을 제외하고 전 도입원료의 관세가 7%

이상되어 도입원료 결제일이 60일 정도 단축됨에 따라 즉, 도입원료는 60일선금구매로 전환되어, 사료업체 및 양축농가에 자금압박이 상당히 가중될 것이 예상된다. (보충설명하면, 사료공장이 미국에서 사료원료를 수입할때 항해일 수 약 30일, 부두도착에서 사료공장 싸이로 보관30일정도를 감안하면 현금구입과 같은 동일한 효과에 의하여 사료공장은 양축농가에 외상판매의 자금여력이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축산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료업체의 자금압박은 곧바로 양축농가에 전가될 것임을 예측할 때 금년 11~12월은 예년에 볼수 없던 축산업체의 불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연지급수입축소에 대하여 무역업체에서는 수출용원자제수입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은 외상수입

〈표 2 - 2〉



을 즉각 요구하였는 바. 축산업계는 차제에 두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정부의 조치에 순응하여 외상구입을 지양하고 현금구매토록 함으로써 과잉된 축산을 자율적으로 조절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경우 부도사태 등 상당한 도산이 우려되고,

둘째는 사료원료의 관세율이 현행 7%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로 낮춤으로서 사료가격인상요인을 상쇄하고 또한 사료업계 및 양축농가의 자금순통을 트이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의 방안이 최상의 방안임에 틀림없다 하겠으나 이의 시행을 위하여는 사

료업계, 양축농가, 관계기관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럴때 일수록 축산인의 단합된 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 사료된다.

이제는 축산불황에다, 대금결제 기간 단축까지 겹쳐 무척이나 신경을 써야하는 아주 어려운 고비에 접어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동업자는 경쟁자다! 음미해볼 만한 말이다. 우리의 세태는 요즘 동업자를 경쟁자로 보는 경향이 농후하다. 같은 동업자인 사료공장의 경우, 도입원료의 공동(구매수량이

많아짐으로 유지)구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혹자는 도입원료를 동일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은 기업발전도 없고 대양축농가 사료가격 경쟁력도 떨어져 공동의 염가구매는 큰 매력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양축농가는 계우회, 낙우회, 양돈회 등을 통하여 염가의 배합사료구매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료제조업의 동업자와 양축농가의 동업자는 어딘지 모르게 반대의 현실을 보이고 있는 느낌이다. 정말 동업자는 경쟁자일까? 동반자 일까?

경쟁자보다는 동반자가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양계

중추·대추

위탁사육 및 주문사육환영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중추·대추

만을 전문으로 육성하고 있는 저희 농원에서는 끊임없는 연구, 노력으로 귀하의 수익증대에 이바지 하고저 합니다.

육성계 전문사육장

삼 정 농 원



농장 :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양벌리 612번지

전화 : (0347) 62-4339

대표자 : 이 오 형